

2020년 3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코로나 공포에 잠식되어 버린 하루 트럼프, “8월까지 코로나 확산될 수 있고,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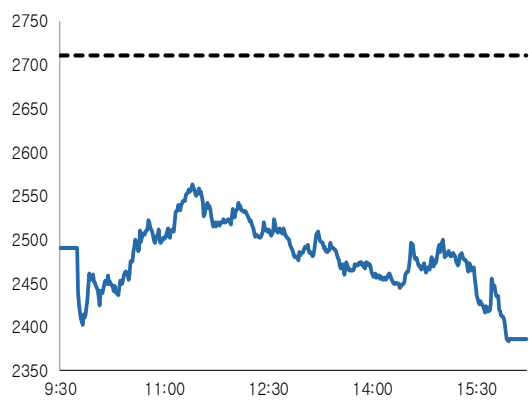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공포에 장악된 하루

미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 공포감이 시장을 장악하며 급락. 한편, 연준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레포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미국 내 코로나 임상시험 시작 발표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트럼프가 8월까지 코로나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이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 확대(다우 -12.93%, 나스닥 -12.32%, S&P500 -11.98%, 러셀 2000 -14.26%)

다우지수가 12.94% 급락하며 하루 낙폭으로는 역사상 2 번째 큰 낙폭을 기록. 이는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일 보다 1 천여명 이상 증가한 4,138 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독일도 전일 대비 1,100 명 증가한 6,012 명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과 유럽 각국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공포심리를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트럼프가 10 명 이상의 모임 금지 권고를 언급하고, 8 월까지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으며, 미국은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공포 심리 자극. 그런 가운데 연준이 추가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오버나이트 레포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도 7,500 억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제안하는 등 의회 또한 공격적인 부양정책을 언급. IMF 또한 1 조 달러 대출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 더불어 G7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발표 했으며, 독일 또한 메르켈 총리가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포에 장악된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함.

한편, 주목할 부분은 주식시장에 공포감이 확산되며 현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나, 화상 회의 회사인 Zoom(+0.36%)은 물론 식품업체인 콘아그라(+9.76%)가 상승 하는 등 코로나 공포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 기대가 높은 종목들과 코로나 임상 시험을 시작한 모데르나(+24.37%)가 급등 한 점.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단행하는 등 일부에서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모든 이들이 공포에 장악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714.86	-3.19	홍콩항셱	23,063.57	-4.03
KOSDAQ	504.51	-3.72	영국	5,151.08	-4.01
DOW	20,188.52	-12.93	독일	8,742.25	-5.31
NASDAQ	6,904.59	-12.32	프랑스	3,881.46	-5.75
S&P 500	2,386.13	-11.98	스페인	6,107.20	-7.88
상하이종합	2,789.25	-3.40	그리스	484.40	-12.24
일본	17,002.04	-2.46	이탈리아	14,980.34	-6.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금융주, 대형 기술주 하락 주도

국제유가 급락과 S&P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엑손 모빌(-9.55%)이 급락했고, 코노코 필립스(-16.89%), 옥시덴탈(-15.71%) 등 에너지 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JP모건(-14.96%), BOA(-15.40%), 웰스파고(-14.34%) 등 금융주는 금리인하와 트럼프의 발언으로 급락했다. 애플(-12.86%), 알파벳(-11.63%), MS(-14.74%) 등 대형 기술주도 공포에 의한 매물 출회로 급락했다.

반면, 화상 회의 회사인 줌 비디오(+0.36%)는 매출 증가 기대 속 상승했다. 코나그라 브랜드(+9.68%)는 식품품 판매 급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캠벨스프(+0.04%), J.M 스머크(+4.65%) 등도 동반 상승했다. 오늘부터 코로나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모데르나(+24.37%)는 급등했다. 한편,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 판매 급증에 대한 기대 속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 부츠(-2.40%)와 로나 임상을 앞두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드(-2.61%)도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8.56%	대형 가치주 ETF(IVE)	-11.19%
에너지섹터 ETF(OIH)	-12.56%	중형 가치주 ETF(IWS)	-13.32%
소매업체 ETF(XRT)	-12.31%	소형 가치주 ETF(IWN)	-13.12%
금융섹터 ETF(XLF)	-13.71%	대형 성장주 ETF(VUG)	-12.62%
기술섹터 ETF(XLK)	-13.81%	중형 성장주 ETF(IWP)	-12.2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90%	소형 성장주 ETF(IWO)	-12.71%
인터넷업체 ETF(FDN)	-11.81%	배당주 ETF(DVY)	-11.09%
리츠업체 ETF(XLRE)	-16.00%	신흥국 고배당 ETF(DEM)	-11.76%
주택건설업체 ETF(XHB)	-18.8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9.58%
바이오섹터 ETF(IBB)	-8.96%	미국 국채 ETF(IEF)	+2.64%
헬스케어 ETF(XLV)	-9.86%	하이일드 ETF(JNK)	-5.76%
곡물 ETF(DBA)	-3.96%	물가연동채 ETF(TIP)	-0.69%
반도체 ETF(SMH)	-14.41%	Long/short ETF(BTAL)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08.41	-13.63%	-18.16%	-49.15%
소재	257.52	-11.44%	-15.29%	-32.24%
산업재	468.10	-11.45%	-15.26%	-34.33%
경기소비재	714.98	-12.08%	-16.10%	-31.42%
필수소비재	541.45	-6.99%	-10.42%	-18.62%
헬스케어	948.61	-9.99%	-11.38%	-21.57%
금융	327.87	-13.99%	-12.94%	-36.48%
IT	1,271.40	-13.91%	-11.72%	-28.91%
커뮤니케이션	141.15	-10.44%	-10.91%	-26.29%
유틸리티	256.95	-11.54%	-19.62%	-27.89%
부동산	181.99	-16.55%	-17.83%	-29.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비관적인 전망에서 한발 물러서야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79% MSCI 신흥 지수 ETF 는 12.48%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3,164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하한가인 11.45pt 하락한 218.1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9.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공포에 잠식 돼 하락 했다. 미 증시 또한 이러한 공포가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수 급락을 야기 시켰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공포에 장악된 심리적인 투매는 한국은행의 긴급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미 증시가 지난 2 월 12 일 고점 대비 30% 가까이 급락하고 한국 증시 또한 지난 1 월 20 일 고점 대비 23.8% 급락하는 등 리세션 수준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과도한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사는 올해 주식시장을 가장 나쁘게 본 증권사였다. 그 주요 요인은 ①미 대선 불확실성 ②높은 밸류에이션 ③경기 둔화 우려 였다. 그러나 미 대선의 경우 자유무역주의자이자 대 중국 온건파중 하나인 조 바이든이 트럼프 보다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우려가 완화 되었으며, 미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 또한 이번 조정으로 12m fwd PER 이 10 년 평균인 15 배를 하회한 14 배를 기록하고 있어 해소 되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인데 이 또한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추가적인 조치 또한 시사하고 있어 관련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당사가 주장 했던 올해 지수 조정의 근거들이 대부분 해소되거나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 공포가 모든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 조정은 불가피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제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한발 물러서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급락

미국 3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12.9)나 예상(4.8)을 크게 하회한 -21.5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2.1→-9.3), 고용지수(6.6→-1.5)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

국제유가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진과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공급 증가 등을 이유로 WTI 기준 9.6% 급락한 28.7 달러를 기록하는 등 30 달러를 하회했다. 이는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원유시장 참여자들은 각국의 국경 폐쇄와 여행 중단 등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하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러시아 루블화, 노르웨이 크로네 등 원유시장과 관련된 환율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달러 대비 2.5% 내외 약세를 보였다. 멕시코 페소는 미국과의 국경 폐쇄 우려가 부각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 속 달러 대비 4.5%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및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전월(12.9) 보다 크게 하락한 -21.5 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 된 점. 트럼프가 8월까지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고 미국이 불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연준의 100bp 금리인하에 비해 하락은 제한되었다. 이는 일부 채권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채권도 매각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금은 장 초반 각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남유럽 사태 당시와 같은 현금 확보를 위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28.70	-9.55	-7.81	Dollar Index	98.000	-0.76	+3.27
브렌트유	30.05	-11.23	-12.54	EUR/USD	1.1178	+0.64	-2.38
금	1,486.50	-1.99	-11.29	USD/JPY	105.86	-1.64	+3.42
은	12,816	-11.61	-24.85	GBP/USD	1.2239	-0.32	-6.69
알루미늄	1,675.00	-0.33	-0.71	USD/CHF	0.9461	-0.59	+2.26
전기동	5,290.50	-3.10	-4.42	AUD/USD	0.6108	-1.53	-7.27
아연	1,933.50	-2.59	-2.30	USD/CAD	1.4005	+1.44	+2.21
옥수수	354.75	-3.01	-4.83	USD/BRL	5.0187	+3.69	+6.27
밀	498.00	-1.58	-4.00	USD/CNH	7.0118	-0.15	+0.85
대두	821.75	-3.18	-5.55	USD/KRW	1226.00	+0.55	+1.81
커피	103.90	-2.67	-4.85	USD/KRW NDF 1M	1229.25	+1.82	+2.3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39	-22.16	+19.80	스페인	0.838	+22.10	+57.80
한국	1.518	-10.10	+25.80	포르투갈	1.051	+24.00	+67.10
일본	0.017	-3.70	+18.00	그리스	2.717	+62.70	+88.30
독일	-0.461	+8.30	+39.50	이탈리아	2.161	+37.80	+74.10